

추억으로 가는 물소리

Unforgettable memories of the Sound of a Stream



글 | 朴寅錫
(Park, In Suk)

토목시공기술사
한국종합기술 상하수도감리부 전무

E-mail: insukp-0216@hanmail.net

금년 여름은 유난히 무더운데 가족과 함께 여름 휴가도 못 가고 무의미 하게 휴가철을 보냈다.

집사람이 보름 전부터 서울 한 동네에서 수년 동안 이웃사촌으로 살던 분들과 강원도 인제군 모 펜션으로 이달에 놀러 간다고 알려주었다.

당일 네 가족이 모여 출발했다. 오랜 동안 매년 한두 차례 부부동반으로 만나서 그런지 아주 편한 모임이었다.

내가 가장 나이가 적고, 나보다 열두 살이나 더 든 분은 항공분야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인지 칠십대 중반까지 항공관련 회사에 근무하면서 대학에 출강하다가 금년에 은퇴했다고 한다.

원통으로 가는 길가에 월학펜션 안내간판이 보였다. 산속으로 십리 정도 비포장도로를 덜거덕 거리며 찾아들어 갔다.

5천여 평에 지은 펜션단지가 계곡과 접하여 정갈하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고랭지 깊은 산골짜기에 지어져 경관이 뛰어나고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우리가 숙박할 곳은 20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꾸며져 있었다.

이 건물을 전세 낸 사람은 일행 중 가장 연배인 분의 동생이 가전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정리하고 이곳에 내려와 전원생활을 하고 있었다. 내외는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고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었다.

해지기 전에 펜션 주변을 산책하다가 관리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본채를 보았다. 이 건물은 특이하게 궁궐에서나 볼 수 있는 고풍스런 전통한옥으로 지었는데 기와지붕처마 끝의 머느리서까래(婦椽)가 돋보였다

내린천으로 흐르는 계곡에는 냉수성 어족인 열목어, 산천어 등 희귀 어종의 증식을 위하여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단다

깊은 산간 계곡에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하여 속속로 돌아왔다. 각자 집에서 가지고 온 반찬을 상에 내놓으니 금세 저녁상이 푸짐하게 차려졌다.

거실에 있는 성능 좋은 노래방 기계가 뱃심이 약해져 작아진 목소리를 높여주어 각각 서너 곡씩 노래를 불렀다.

맨 나중에 세상사는 이야기로 밤 깊은 줄 물랐다.

이튿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는데 그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났다.

어제 저녁 산책했던 코스를 따라 혼자 걷자니 깊은 산중이라 멧돼지라도 나타날까 두려운 생각이 들어 소름이 오싹했다.

아침식사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뚝자리를 들고 계곡으로 우르르 내려갔다. 뚝자리를 깔려고 편평한 곳으로 가자니 신발을 벗어야 건너갈 수 있었다.

물가에 있는 호박돌을 집어다 깔아놓아 부인들이 마음 놓고 건널 수 있게 했다. 물가에 앉아 발을 담그니 발이 저리도록 시려왔다. 물속에는 멧계구름이 함께 흘러갔다.

부인들은 고기를 굽고, 안주를 준비하고 우리는 편히 쉬다가 술 한 잔씩 나누었다. 한 잔 두 잔 건네다 보니 어느새 여러 잔씩 마셨는데도 취기가 들지 않은 것 같았다.

해가 많이 남아 숙소로 돌아와 조금 쉬다가 옥수수 밭에 가서 옥식기(강원도에서는 강냉이 등과 구분하여 표현한다고 함)를 따러 가자고 한다. 여기에는 일손이 부족하니 옥식기를 따가고 싶은 만큼 따가도 좋다는 말에 아내와 나는 비닐봉지를 들고 밭으로 나갔다.

옥식기를 딸 때 그 특유의 우지직 소리가 났다. 이 소리는 어릴 적 고향에서 자주 들던 그 소리였다. 큰 봉지에 가득 따 담아왔다.

맑은 공기가 그리워 해질녘 집사람과 펜션 둘레 길을 산책하고 있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차에 태워다준 분이 혼자 임도(林道)를 따라 올라오다가 마주쳤다.

아내는 부인들이 있는 숙소로 돌아갔다. 그분과 나는 양구 방향으로 잘 닦여진 임도를 따라 '인제 국유림관리소' 영내로 들어갔다. 이곳은 우리 둘만이 걷고 있어 마치 절간같이 적막했다.

한동안 걸다가 지난 콤파스 태풍이 불 때 길 쪽으로 어린 소나무가 쓰러져 임도를 가로막고 있었

다. 우리는 무심코 그 나무를 밟고 지나갔다. 다른 사람이 차를 몰고 넘어가 나무순이 벗겨져 보기 안 쓰러웠다.

어둠이 깔린 길을 되돌아왔다. 그분과 나는 방금 지나친 길바닥에 쓰러져 상치난 소나무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흙을 덮고 발로 밟아주어 다시 쓰러지지 않도록 했다.

내가 다시 이곳에 올 일은 없겠지만 잘 자라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즐겁게 거닐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임도 근처 깊은 산에서 능이(能楸), 목이(木楸) 버섯 등도 자란다고 하는데 특히 송이(松楸)버섯이 가장 잘 자라는 곳이라 했다. 그래서인지 '국유 임산물 송이버섯 불법채취 금지구역'이라는 경고판을 세우고 관리하고 있었다.

임도 위, 아래 산마다 아람 들이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 침엽수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산을 뒤덮고 있었다. 소나무 줄기의 껍질은 적갈색으로 곧게 자라고 있었다. 그것들은 나중에 문화재 복원공사 때 용재로 사용할 수 있는 재목으로 잘 자라고 있었다.

구절초, 달맞이꽃들이 길가에서 방실거리며 우리를 반겼다.

인제군 북면은 청정지역으로 계곡에는 1급수가 흐르고 있으며, 양쪽에서 흘러든 계곡수가 서로 만나는 곳에는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울창한 숲, 맑은 계곡수, 물살이 세게 흐르는 물 소리가 지금도 귓전에 쟁쟁하다.

(원고접수일 2010년 9월 29일)